

# 체질침법 연구 경향을 통한 사상체질침법 정립에 관한 연구

유준상\* · 한수지 · 안다영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교실

## Abstract

### A Study on Establishing the Sasang Constitution Acupuncture Method through Reviewing Research

Jun-Sang Yu\* · Suzy-Han · Da-Young Ahn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 Objectives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SCM) is uniquely established in the field of Korean Medicine. Taegeuk Acupuncture(TGA) and Eight Constitution Acupuncture(ECA) which are created upon SCM are applied in clinics. However, there exists no established theory but hypothesis with regard to the composition of acupoints of constitution acupunc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help establish the Sasang constitution acupuncture(SCA) method.

#### Methods

Thirties studies were found on various Oriental medicine journals and 17 literatures with the key words relevant to constitution and acupuncture.

#### Results

For the principle of acupoint selection, 12 studies were included which were classified into TGA, ECA, SCA, other constitution acupuncture. Among 17 literatures, most of them were relevant to SCA. For the clinical studies, eight of total 13 using ECA were for musculoskeletal diseases.

#### Conclusions

Among studies and literatures chosen, the application of Saam's acupuncture method was most frequently found in SCA method. For establishing the SCA method, the two main concepts need to be considered, which are the consideration of four areas namely Lungs, Spleen, Liver and Kidneys and upward-downward-loosening-tightening movement of the Qi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type.

**Key Words:** *Taeguek Acupuncture, Sasang Constitution Acupuncture, Eight Constitution Acupuncture, acupoint*

## I. 緒論

사상의학은 중의학과 구별되는 한의학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상의학에 관한 연구는 약물이나 처방을 활용한 것이 대부분으로 한의학의 주요 치료 도구인 침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사상의학적 침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의 정립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少陰人泛論」에서 소음인 中氣病 舌卷不言에 어떤 의사가 合谷穴에 刺針하여 그 효과가 빠르고 놀라왔다고 언급하였으며, 升降緩束의 치료대강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체질별 혈자리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동안 사상침법 혹은 체질침법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논문과 문헌이 출판되었으나<sup>2,4,5</sup>, 아직까지 사상인의 생리와 병리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침법을 제시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권<sup>3</sup>의 팔체질침법이 소개된 뒤 이<sup>4</sup>의 태극침법이 알려졌으며, 그 이후 오행침이나 사암침법을 이용한 방법, 병증을 비교하여 사상침법을 정립하고자 한 연구 등이 있었다<sup>5</sup>.

조<sup>6</sup>는 『黃帝內經』의 「熱論」에 나온 경락을 이용해서 升降緩束의 바탕에서 足經을 중심으로 사상인의 응용혈과 穴性歌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상한론의 병증을 경락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므로, 그 경락에서 사상인의 경혈을 찾으려는 시도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갖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사상체질침법을 설명하는데 있어, 四象과는 다른 개념인 오행을 도입해서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 臟腑大小에서 말하는 대소의 문제를 해당경락과 연결지어 허실을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었다<sup>7</sup>.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체질침이라고 언급된 기존의 논문과 단행본을 검토하고 사상체질침법을 고안할 때 고려해야 할 특성과 연관된 고려사항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 II. 研究方法

### 1. 연구 대상

KISS(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RISS(Regional Identical Screening Search), 국회도서관, OASIS(한의학연구원), NDSL(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한국전통의학포털에 논문이나 책 제목을 '사상 AND '침' 혹은 '체질' AND '침', '사상침법', '사상침', '8체질 침법', '팔체질침법', '태극침법' 등을 검색하였고, 영어 논문을 찾기 위해서 pubmed에서 'Sasang AND acupuncture' 혹은 'constitution AND acupuncture'로 검색하였다. 이 중 연구내용이 본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는 논문 및 저서를 제외하였다.

### 2. 자료검색

#### 1) 자료검색 기간

이전자료부터 2019년 7월31일까지 검색된 자료로 하였다.

#### 2) 자료의 선정

3명의 저자 중 2명의 저자(유준상, 한수지)가 개별적으로 상기의 검색엔진을 사용해서 포함기준/제외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되,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제3의 연구자(안다영)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였다.

#### 3) 포함기준/제외기준

##### (1) 포함기준

논문이나 서적의 경우 사상체질뿐 아니라 체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 태극침법, 팔체질침법, 기타 사상체질을 언급하고 침법을 설명한 경우 분석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임상케이스 논문이나 임상시험논문도 포함시켰다. 언어는 한글이나 영문을 포함시켰다.

(2) 제외기준

리뷰논문, 사상체질이나 팔체질 등 체질진단 논문 및 침시술을 하고 체질별 생체신호 반응을 측정 한 논문 등 실험논문은 배제하였다. 임상케이스 논문 중 침과 한약을 복합처방한 논문도 제외하였다. 언어가 한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논문이나 저작물은 제외되었다.

3. 자료 분류 방법

각 연구 대상 자료는 원리론 부분과 임상부분의 2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원리론 부분은 각 침법의 원리를 설명하거나 특히 체질침의 경혈을 설명하는 논문이나 서적이며, 임상부분은 임상논문이나 임상시험 논문이었다. 각 세부 분류에 대해서는 태극침법, 팔체질침법, 사상침법, 기타 침법 등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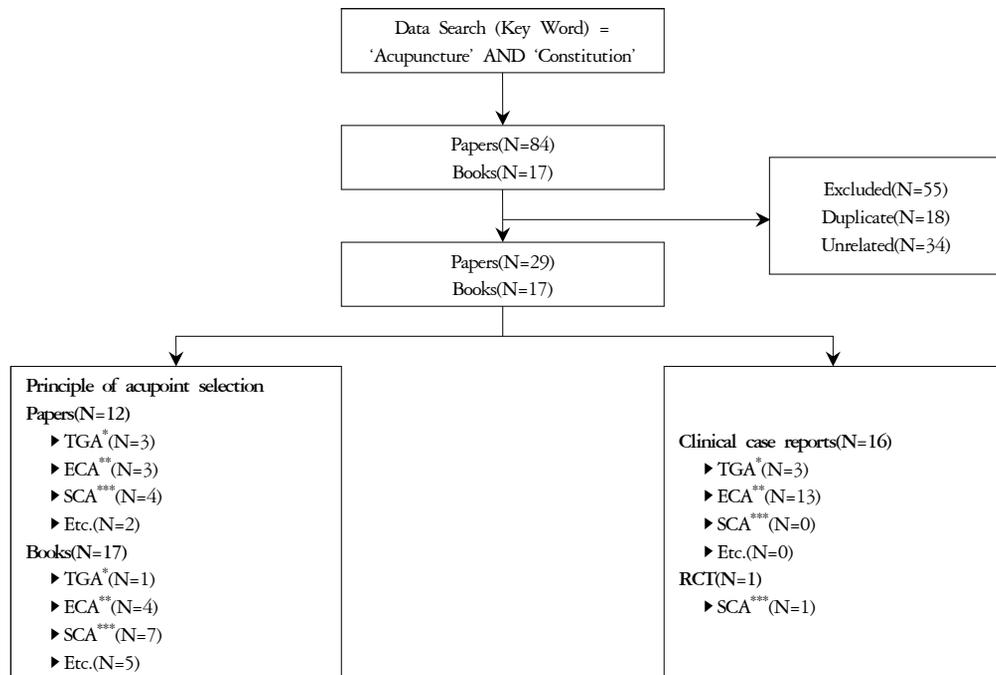
III. 結果

1. 원리와 경혈이 언급된 논문과 저작물

1) 논문

원리나 침법에 따른 경혈을 언급한 논문은 12편이었으며, 태극침법에 관한 것이 3편<sup>7,9</sup>, 팔체질침법에 관한 것이 3편<sup>3,10,11</sup>, 사상침법에 관한 것이 4편<sup>5,12-14</sup>, 기타 침법(『難經』의 장부허실보사체질침, 24체질침)에 관한 것이 2편이었다.

태극침법은 이병행의 『鍼道源流重磨』에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소음심경의 五輸穴을 이용해서 상극의 효과를 이용하였다. 少府(火穴)는 火克金의 원리로 태양인의 진단혈, 神門(土穴)은 土克水의 원리로 소음인의 진단혈, 靈道(金穴)는 金克木의 원리로 태음인의 진단혈, 少海(水穴)는 水克火의 원리로



\* TGA : Taeguk Acupuncture  
 \*\* ECA : Eight Constitution Acupuncture  
 \*\*\* SCA : Sasang Constitution Acupuncture

Fig. 1 Flowchart of Data Selection

소양인의 진단혈로 삼는 것이다. 또 두 경락에서 각각 한 개의 혈을 취해서 치료혈로 삼으며, 혹은 각 체질의 특정 영역에 질환이 있을 때 四黨의 개념을 이용해서 치료한다<sup>4</sup>.

태극침법에 심하부 압진과 간탁음이라는 것을 합쳐서 20여년간 임상에 적용한 결과를 발표한 예<sup>29</sup>도 있다.

팔체질침법은 사상침법을 연구하던 권도원이 개발한 침법으로서, 사상과는 달리 8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는 맥상에 따른 체질유형이 8개 있다고 알려져 있다. 최강장기와 최소장기를 나누고, 중간에 3개의 장기를 나열하여 힘의 대소를 구분한다. 침처방의 경우에는 기본처방이 되는 본방과 보조적인 부방으로 구성, 본방과 부방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처방으로는 살균방, 활력방, 정신방, 장계염증방, 부계염증방 등이 있다<sup>3-5</sup>.

팔체질침법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점을 견지하고 있다. 체질적 장부대소를 경락의 조절(補瀉)로 다스릴 수 있다는 점, 각 체질별로 제1병증, 제2병증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 五輸穴의 送受穴이 있다는 점, 체질별로 고유한 脈象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sup>15</sup>.

사상침법에 대한 논문으로는 조<sup>6</sup>가 12正經을 중심으로 특히 『黃帝內經』 『熱論』의 경락을 연결지어서 사상인에 해당하는 경락, 경혈의 조합을 찾고자 하였다.

이창원의 사상체질과 체질침을 고찰한 논문<sup>12</sup>에서는 좌우비교맥진을 이용해 체질을 진단하며, 체질은 사상체질뿐임을 강조하고 사암침법의 正格과 勝格을 차용하여 설명하였다.

강<sup>3</sup>은 기존의 사상의학적 침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사상의학적 침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김<sup>14</sup>은 是動病과 所生病을 이용하여 병증을 분석하고 오수혈과 腹募穴, 背輸穴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 2) 서적

서적으로는 17권이 검색되었으며, 태극침법에 관한 1권<sup>4</sup>, 팔체질침법에 관한 4권<sup>16-19</sup>, 사상침법에 관한 7권<sup>15,20-25</sup>, 그 밖의 체질에 관련된 5권<sup>26-30</sup>이 있었다.

태극침법에 관한 것은 이병행의 『침도원류중마』<sup>4</sup>가 있으며, 팔체질침법에 관한 서적은 권도원의 기본이론을 설명한 책과 이를 현대 해부학적 관점에서 좀더 심화한 서적이 있었다<sup>9</sup>.

사상침이라고 언급하고 소개하고 있는 서적은 7권으로, 김<sup>22</sup>은 사상인의 장부대소를 오행과 결부시켜 설명하고, 경맥의 순행을 근거로 사암침을 통해 장부대소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 침치료의 바탕이 정확한 사상체질진단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체질진단법으로 금속 진동자를 사용하고 있어 사상의학의 종합적 진단방법과는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김<sup>23</sup>은 다른 저서에서 복진에 의하여 사상인을 감별, 다른 저서와 달리 심포경과 삼초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침 처방 선택을 사암침에 근거, 사상인별 표증과 리증으로 나누어 상생상극의 원리에 따른 침 처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며, 심포경과 삼초경을 언급한 土虛와 土實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sup>21</sup>은 촌관척의 비교맥진을 통해서 체질을 진단, 오행침을 이용하여 질병의 장기와 연결된 정경혈을 사용하였으며 체질침을 이용한 질병의 예방과 체질강화를 강조하였다. 김은 폐국, 비국, 간국, 신국을 설정하고, 각 체질별 병증에 맞는 사상처방에 대응하여 오수혈의 오행적 속성으로 침처방을 풀이한 1권의 서적<sup>20</sup>과, 체질적 속성을 이용해서 오행침을 체질에 따라 달리 활용해야 한다는 1권의 서적<sup>15</sup>을 출간하였다. 김<sup>24</sup>은 四象情針에 대해서 기존 한의학의 오장과 사상의학의 폐비간신을 혼동하지 말 것, 따라서 사암침의 보사법이 아닌 승강완속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木穴이 升散之氣, 火穴이 升하는 氣, 金穴이 吸하는 氣, 水穴이 降하는 氣라는 관점을 반영하고, 九六補瀉와 自經補瀉를 설명하였다. 김<sup>25</sup>은 呼吸과 出納을 중심으로 태양인은 呼氣, 소양인은 納氣, 태음인은 吸氣, 소음

인은 出氣를 바탕으로 하므로, 오수혈 증 金穴은 肺黨, 土穴은 脾黨, 木穴은 肝黨, 水穴은 腎黨에 배치, 火穴은 통합조절 작용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기타 다른 체질침을 소개하는 서적은 5권으로 24체질을 설명한 서적<sup>26</sup>, 오상체질과 같은 5체질을 설명한 서적<sup>27</sup>, 오상체질의학원론과 새로운 침치료법에 대한 서적<sup>28</sup>, 오행이나 16상을 통해 체질침을 설명한 서적<sup>29,30</sup>도 있었다.

## 2. 임상연구와 임상시험연구

체질침을 활용한 임상연구 및 임상시험연구를 분석한 결과 총 17편의 논문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으며, 그 중 팔체질침을 활용한 임상증례 논문은 13편<sup>31-43</sup>이었으며, 그중 8편<sup>31-38</sup>이 근골격계질환을 대상으로 하였다. 태극침법을 활용한 논문은 3편<sup>44-46</sup>, 임상시험연구는 1편<sup>47</sup>이었으며, 오행침법을 이용한 논문은 없었다.

## IV. 考察

사상의학은 인체에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강조하는 의학이기도 하지만, 인체에 병이 생겼을 때는 한약이나 침을 사용하는 것이 주요 도구가 될 것이다. 이미 한약에 대해서는 병증론의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정립이 된 부분이 있지만, 경락이나 경혈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맥이 주로 開闔樞의 3을 바탕으로 하여 6개가 형성되고, 다시 手足經의 12개의 주요 경맥을 가지게 되니, 4개를 강조하는 사상과 조합이 잘 되지 않기도 하고, 오수혈이 木火土金水의 오행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 사상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에 대해 장애나 거부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다.

아직까지 사상체질의학회의 침법에 대한 공식적인 가이드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상체질침법을 정립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주요한 핵심개념을 찾고자 하였다.

체질에 따른 침치료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된 결과가 팔체질침, 태극침법, 오행침법을 이용한 사

Table 1. Articles Concerning Constitution Acupuncture Method

N	Disease	Method	Author(Year),Reference
N=13	Arthroscopic Partial Meniscectomy	ECA	Kang YH(2001)[31]
	Lumbar Herniated Disc Disease	ECA	Chae SJ(2001)[32]
	Neck Pain	ECA	Kim YW(2003)[33]
	Acute Stage Lumbago	ECA	Lee YK(2009)[34]
	Melalgia	ECA	Choi HJ(2010)[35]
	Acute Stage Lumbago	ECA	Lee YK(2009)[36]
	Degenerative Knee Pain	ECA	Chae SJ(2004)[37]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ECA	Hwang MH(2016)[38]
	Idiopathic hiccups	ECA	Lee SH(2001)[39]
	Meniere's Syndrome	ECA	Lee HH(2002)[40]
	Thrombocytopenic Purpura	ECA	Seo YW(2006)[41]
	Allergic Rhinitis	ECA	Kim HK(2009)[42]
	Trigeminal Neuralgia	ECA	Lee YK(2012)[43]
N=3	Sub-health Status	TGA	Kim JK(2011)[44]
	Chronic Musculoskeletal Pain	TGA	Kim JK(2014)[45]
	Essential Tremor	TGA	Hwang MH(2015)[46]
N=1	Parkinson(RCT)	SCA	Kim HB(2007)[47]

ECA : Eight Constitution Acupuncture, TGA : Taeguak Acupuncture, FEA : Five Element Acupuncture, RCT :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CA : Sasang Constitution Acupuncture

상체질에의 적용 및 사상체질의 생리 및 병리구조를 따른 시도들이었다.

팔체질침에 대한 비판은 계속 있어 왔으며, 대표적인 것이 기존 오행의 관점에서 폐-대장, 간-담, 비-위, 신-방광과 같은 장부의 연결을 하고 있다는 점<sup>12</sup>이다. 또 『동의수세보원』의 表裏病證論을 서로 독립적으로 8병증으로 해석하여 臟疾과 腑疾을 설정, 결국 8체질론을 등장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8체질론은 『동의수세보원』의 병증론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해석학적 변형을 통해 새로운 구성의 길로 나아간 체질론으로 설명하여 사상체질과는 다른 체질론 및 체질침법으로 보고 있다<sup>48</sup>. 따라서 사상침을 확립하는데 참고할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간극이 있다고 사료된다.

팔체질침은 임상적으로는 13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있어서 체질침 임상논문 17편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중 근골격계질환에 활용한 예가 62%(8편)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특발성 딸꾹질, 메니에르 증후군, 혈소관감소성 자반증, 알레르기성 비염, 삼차 신경통 등 다소 난치성 질환에 응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태극침법에 대한 비판으로는 태극침법이 火土同胞의 관점에서 脾를 火로, 心을 土로 대응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오행의 變通에서는 火土同胞 뿐 아니라 金土同胞, 水土同胞 등 다양한 오행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오직 心經의 혈들을 운영하여 체질을 진단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는 것과 脾經을 火로 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가 하는 점은 의문이 남게 된다<sup>12</sup>.

태극침법은 1974년 발표된 이래 간단한 활용법으로 널리 알려지기는 했으나, 활용면에서 팔체질침만큼 다양한 논문이나 서적이 출판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상논문으로는 아견강상태, 만성 근골격계 질환, 본태성 떨림 등 3편의 논문의 발표되었다.

기존의 오행침법을 이용하여 사상체질에 적용한 논문에 대한 비판으로는 東武公이 사상의학에서 말한 인체 장부의 개념과 음양오행적 관점에서 본 오장육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사상의학에서 肺脾肝

腎이라 함은 四焦의 개념과 喜怒哀樂의 性情이 升降概念으로 연결, 心을 一身의 主宰로 삼고 성정이 지나치거나 促急함에 따라 폐비간신의 기가 영향을 받아 장부대소가 결정되어 사상인이 나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사상의학의 肝과 음양오행관점에 따른 肝의 개념이 다른 것인데도, 이를 동일하다고 보고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관점에서 변통하여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sup>12</sup>. 한약과 복합처방없이 오행침법만을 적용한 임상논문은 없었다.

사상의학적 관점에서 침법을 설명하려는 몇 가지 노력도 존재하였다.

조<sup>6</sup>는 장중경의 六條病證과 岐伯의 六經病證에서 東武公의 입장을 유추해 보기도 하고, 기백의 足三陰三陽經에서 사상인의 응용경락을 선택해 보기도 하였으며, 사상인의 經絡(穴)을 운용하기 위해서 升降緩束의 논리를 사용해 단일경락, 복수경락의 예를 제시해 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五輸穴 중에서 사상혈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는 등 이처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분석한 결과 단일경락을 사용할 때는 五輸穴에서 사상혈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하였고, 복수의 경락을 사용할 시에는 穴性歌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다. 한편 조절자로서 사상혈의 土氣(心, 오행속성상의 火)의 운용이 필요하며, 사상경락 중 原穴을 이용할 필요가 있고, 自經의 경우 保命之主를 극대화하는 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사상의학적 입장에서 가장 다방면의 검토를 한 첫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상인에 적용하기 적절한 방법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조<sup>6</sup>가 지적한 바대로 원혈, 혹은 오수혈을 활용하는 오행침일 것이다. 이에 김<sup>15</sup>도 오행침을 이용해서 체질에 따라 활용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心과 心包의 기능상 대소를 구별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김<sup>20</sup>의 다른 서적에서는 이제마의 주요 약물처방별로 해당하는 혈자리를 제시하였는데, 사상인별 장부의 대소에 따라 각 장부의 기운이 연결하지 못하여

질병이 발생하는 것에 기초하였다. 또한 처방별로 해당하는 혈자리를 비교 제시하였으며, 사상인의 체질 감별 또한 『동의수세보원』에 근거하였다. 각 肺局, 脾局, 肝局, 腎局에 대해서 오행혈에 體와 用의 관계를 이용해 木穴은 金氣, 火穴은 土氣, 土穴은 火氣, 金穴은 木氣, 水穴은 水氣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김<sup>25</sup>은 혈의 순환과 생성에 관여하는 고리를 金穴과 木穴로 설명하고, 기의 생성과 순환에 관여하는 고리를 土穴과 水穴로 배치하였다. 앞의 김<sup>20</sup>의 설명과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木穴을 수렴성, 金穴을 발산성, 土穴을 기의 생성 혹은 火氣, 水穴을 기의 순환 혹은 水氣로 보는 것이다. 김<sup>20</sup>의 4개의 臟局과 혈의 오수혈 배치와, 김<sup>25</sup>의 폐와 간의 고리, 비와 신의 고리에 대한 이론은 기존에 발표된 단순한 오수혈의 활용보다는 더 사상의학적 관점에 근접하고 있어 추후 임상적 활용이 기대된다.

두 서적은 기본적으로 폐국, 비국, 간국, 신국을 설정하였으며, 김<sup>25</sup>은 폐국과 간국의 호흡고리, 비국과 신국의 氣(에너지)고리를 설정하여 설명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사상의학에서 언급하는 肺肝이 氣液呼吸之門戶, 脾腎이 出納水穀之府庫라는 것과의 연관성 상에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한편 폐와 간이 호흡을 담당하는 설명과 결국 비와 신의 출납수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한열이라는 에너지라는 설명에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폐·간의 호흡고리에 간이 포함되어 있는 바 기혈중 혈과의 관련성이 높고, 비·신의 기(에너지)고리는 기혈중 기의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이에 대해서도 이론적·임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폐·위완, 비·위, 간·소장, 신·대장의 고리를 설명하여 4장4부의 이론을 펼친다. 오수혈의 배속에서는 金穴을 血의 순환에, 土穴을 氣의 생성에, 木穴을 血의 생성에, 水穴을 氣의 순환에 배치, 심, 심포의 역할을 인체의 심신을 통합조절하는 기능으로 설정하였다<sup>25</sup>.

김<sup>20</sup>은 폐국, 비국, 간국, 신국을 설정하고, 사암침

법의 正格과 勝格을 일부를 조합하기도 하지만 각 체질병증에 따라, 더 깊이 있게 각 약물처방에 따라서 침처방을 구성하였다. 각 局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락이나 八脈交會穴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신국에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신경, 방광경을 사용한다. 하지만 관점자체가 升降緩束에 집중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상체질침을 설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사상체질침을 활용한 임상논문은 사상체질의학회지에 실린 여러 임상 치험례의 침치료 부분에 나름대로 각 체질에 사암침의 정격이나 승격을 활용한 내용을 찾을 수 있으나, 한약처방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침시술 논문이라고 볼 수 없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침치료만을 활용한 논문을 검색한 결과 1편의 논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상체질침에 대한 임상연구논문으로는 파킨슨질환 환자를 무작위배정을 하여, 사상체질진단 후 대조군에는 태충혈, 양릉천, 족삼리혈의 외측혈을 사용, 실험군은 사상체질결과에 따라 소양인은 부류(KI7)를 보하고, 행간(LR2), 지구(TE6)를 사하며, 소음인은 대도(SP2)를 보하고 척택(LU5), 음곡(KI10)을 사하며, 태음인은 태연(LU9)을 보하고, 용천(KI1), 대둔(LR1)을 사하며, 태양인은 곡천(LR8)을 보하고, 신문(HI7), 태백(SP3)을 사하였다. 주 2회의 침치료를 4주간 시행한 전·후의 심박변이도를 측정하여 사상체질별로 다르게 침치료를 한 경우가 더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사용한 체질별 혈위선정에 대해, 이정래의 논리를 이용하여 소양인에게 腎經의 金穴을 보하고, 肝經과 三焦經의 火穴을 사한 것이며, 소음인에게 脾經의 火穴을 보하고, 肺經과 腎經의 水穴을 사한 것이다. 태음인에게 肺經의 土穴을 보하고, 腎經과 肝經의 木穴을 사한 것이며, 태양인에게 肝經의 水穴을 보하고, 心經과 脾經의 土穴을 사하였다<sup>22</sup>.

그러나 이것은 소양인이 木火가 왕성하여 木火를 사하고 金水를 보조해야 한다거나, 태양인이 火土가 왕성하여 火土를 사하고 水木을 보조해야 한다든지,

소음인은 金水가 왕성하여 金水를 사하고 火土를 보조해야 한다던지, 태음인은 水木이 왕성하여 水木을 사하고 土金을 보조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여 수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위에서 고찰한 여러 논문<sup>13</sup>과 서적을 고려하면, 향후 사상체질침의 나아갈 방향은 기존에 언급한 四焦論에 근간을 하고 升降緩束을 조절할 수 있는 경혈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오행이나 경락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김<sup>25</sup>은 오수혈의 목화토금수의 혈자리를 차용하였으나, 오행의 상생상극관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폐-간의 呼吸聚, 비-신의 水穀出納의 사상의학적 개념에서 오수혈을 재배치했다는 점, 김<sup>20</sup>은 사암침의 오행이론, 팔맥교회혈 등의 경락개념을 사용하긴 했으나, 체질감별을 사상의학적 방법을 사용했으며 사상처방의 작용에 연계하여 혈자리를 제시했고, 4臟局의 배치를 사용하였으므로 升降緩束의 핵심개념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 향후 사상체질침법 정립에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한다.

## V. 結論

체질에 관련된 혈위선택에 관한 원리와 임상에 관한 논문과 서적을 분석한 결과, 태극침법, 사암침을 활용한 체질침법, 팔체질침법, 기타 체질침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태극침법과 팔체질침법은 사상체질을 바탕으로 출발한 침법이지만 사상체질침법이라기 보다는 또 다른 체계에 의한 체질침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임상논문에서는 팔체질침법에 관한 것이 다수 보고되었으며, 그중 근골격계질환에 관한 임상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임상에는 사암침을 이용하여 체질침법으로도 활용하고 있으나, 폐비간신의 臟局에 따라 升降緩束을 고려한 침법이 사상체질침법으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VI. References

1. Dep.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ll colleges of Korean Medicine in Korea(compilation). The revised and enlarge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eoul: Jipmoondang. 2012;671. (Korean)
2. Kim JK. A Study on Eight Constitutional Medicine. Proceedings of Korean Jungshin Science Symposium. 2011;1-8. (Korean)
3. Kuan DW. Effect of Constitution Acupuncture. Journal of Korean Medicine. 1963;1(7):4-5. (Korean)
4. Lee BH. Zhenjiudacheng. Seoul: Hanglim-Pub. 1974. (Korean)
5. Kim MG, Park SS. An Approach about How to Solve Problems of Preexistence Sasang Constitutional Acupuncture and Its Meaning of Meridians.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8;20(1):15-23. (Korean)
6. Cho HS. Approach in Selecting Four Constitutional Acupuncture.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5;17(1):1-15. (Korean)
7. Lim GM, Baek JU. A Study on the Analysis of Taeguak Acupuncture Focused on 『Young Chu · Gu Chim Sib Yi Won』.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2012; 18(2):25-38. (Korean)
8. Moh HY, Lim GM, Baek JU. A study on the indications of Five Viscera Source Point Acupuncture extended from Taeguak Acupuncture; Focused on Yeoungchu (靈樞).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2;25(4)123-147. (Korean)
9. Chae H, Lee JY, Jeon ES, Kim JK. Personalized acupuncture treatment with Sasang typology.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2017;6(4):329-336. (Korean)
10. Jeong SJ, Kim BS, Kang JS. Study on the Composition of Acupoints of Eight Constitution Acupuncture.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8; 22(6):1397-1402. (Korean)
11. Lee BH, Kwon KB, Park C, Jo CR, Ryu DG. Study

- on Principle of the Theory of Eight Constitutional Medicine.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9;23(4):789-798. (Korean)
12. Ahn CB, Youn HM, Hea JY, Kwon HY. A study on Chang-Won Lee's theory of sasang and acupuncture of constitution,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2002;19(1):225-235. (Korean)
  13. Kang BC. A Methodological Study for Sasang Constitutional Acupuncture. Dongguk University. 2008. (Korean)
  14. Kim MK. An Approach on Sasang Constitutional application of Acupuncture: Mainly about Sidong'Sosaeng disease. Dongguk University. 2010. (Korean)
  15. Kim JS. Constitutional application of Ohaeng-acupuncture. Seoul: Jeongukeuihaksa. 2002. (Korean)
  16. Lee KJ. A Clinical Study on Eight Constitutional Medicine. Seoul: Institute of clinical Eight Constitution Acupuncture. 2016. (Korean)
  17. Lee KJ. A Study on Eight Constitutional Medicine. Goyang: HLMedical. 2009. (Korean)
  18. Joo SW. Principle of Eight Constitutional Medicine. Seoul: Tongnamu-Pub. 2007. (Korean)
  19. Kim YJ. Anatomical application of Constitution Acupuncture. Paju: Mulgogi-Pub. 2015. (Korean)
  20. Kim JS. Acupuncture Method of Sasangin. Bucheon: Jeongukeuihaksa. 2003. (Korean)
  21. Kim HJ. Sasang Constitutional Acupuncture. Seoul: Kim-Pub. 1995. (Korean)
  22. Kim KY. Saam's Acupuncture and Herbal Therapy of Sasangin. Seoul: Namsandang. 1998. (Korean)
  23. Kim KY. A Study on the Size of the Internal Organs and Saam's acupuncture. Seoul: Namsandang. 2005.
  24. Kim JH. Introduction of Donguisusebowon and Sasang Acupuncture according to affection. Seoul: DSMedical. 2014. (Korean)
  25. Kim DH, So KS. Dusol Sasang Acupuncture. Bucheon: Jeongukeuihaksa. 2006. (Korean)
  26. Yum TH. Treatment of Constitutional Acupuncture with importance. Seoul: Witgoni-Pub. 2007. (Korean)
  27. Park WJ. Amazing Five Constitution Acupuncture. Seoul: Seogyo-Pub. 1999. (Korean)
  28. Yum DH. Principle of Five Constitution Medicine and new method of acupuncture treatment. Seoul: SIRU. 2012. (Korean)
  29. Lee DU. Constitutional Acupuncture. Seoul: Institut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2. (Korean)
  30. Song KS. Medicine of Constitution Acupuncture. Seoul: Korean Constitutio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ociety. 1981. (Korean)
  31. Kang YH, Kim SU, Son YS, Seo JC, Youn HM, Jang KJ. A Case Report on Performing 8 Constitutional Acupuncture Therapies for a Case of Arthroscopic Partial Meniscectomy. Dongeui Hani Research. 2001; 5(1):67-75. (Korean)
  32. Chae SJ, Kim NO, Park YC, Son SS. Comparison of the Improvement of Subjective Symptoms between Body Acupuncture Group & 8 Constitution Acupuncture Group.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001;18(3):48-55. (Korean)
  33. Kim YW, Lee KM, Kim SW, Lee SY, Seo JC, Jung TY et al. The Effect of 8 Constitution Acupuncture on Neck Pain by Pain Disability Index and Visual Analogue Scale.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003;20(1):202-208. (Korean)
  34. Lee YK, Park SY, Jeon HJ, Kim SH, Kim JH, Lee SM et al. The Comparative Study on Effect of Body Acupuncture and 8 Constitution Acupuncture in Acute Stage Lumbago -For Patients Checked up the Pancreotonia.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009;26(2):181-188. (Korean)
  35. Choi HJ, Kwon YJ, Kim JH, Kwak HY, Back YH. Case Report: Eight-constitution Acupuncture Treatment for the 13-year-old Patient with Melalgia. The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the Spine and Joint Korean

- Medicine. 2010;7(1):51-57. (Korean)
36. Lee YK. The Comparative Study on Effect of Body Acupuncture and 8 Constitution Acupuncture in Acute Stage Lumbago Patients for Checked up the Pancreotonia. The Journal of East-West Medicine. 2010;35(3):95-105. (Korean)
  37. Chae SJ, Song HS. Original Article : The Effect of 8 Constitution Acupuncture on degenerative arthritis of knee joint.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004;21(4):65-73. (Korean)
  38. Hwang MH, Lee YK, Kim JS, Lee HJ, Lim SC. A clinical case study of a patient with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CRPS) type 1 treated by 8 constitution acupuncture.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2016; 33(3):181-187. (Korean)
  39. Lee SH, Kim RY, Lee DS. A Clinical report on 8 Constitutional Acupuncture Therapies for Treatment One Case of Persistent and Idiopathic hiccups. Korean J Orient Int Med. 2001;22(1):95-101. (Korean)
  40. Lee HH, Kim JG, Jung MG, Kim YC, Kim JD. A Clinical report on 8 Constitutional Acupuncture Therapies for Treatment One Case of Dizziness Suggested Menieres Syndrome.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2002;16(5):1079-1083. (Korean)
  41. Seo YW, Ko H. Eight Constitution Acupuncture Effect on Thrombocytopenia After Splenectomy at Idiopathic Thromobocytopenic Purpura as First Manifestation of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Lupus.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006;23(4):219-24. (Korean)
  42. Kim HG, Hong SW. 3 cases of the effect of 8 Constitution Acupuncture on Allergic Rhinitis.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2009;22(2):251-260. (Korean)
  43. Lee YK, Kwon OG. A Case Report about the Patient with Trigeminal Neuralgia Treated by 8 Constitution Acupuncture. The Journal of East-West Medicine. 2012;37(3):65-70. (Korean)
  44. Kim JK, Chae H, Kim KH, Noh SH. Clinical Observation on Effectiveness of Taegeuk Acupuncture for Patients in Sub-health Status: a Case Series.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011;28(4):111-117. (Korean)
  45. Kim JK, Kim KH, Noh SH, Kim YR. Taegeuk Acupuncture for Patients with Chronic Musculoskeletal Pain: A Retrospective Analysis of Medical Records. The Acupuncture Research. 2014;31(2):145-152. (Korean)
  46. Hwang MH, Lee YK, Kim JS, Lee HJ, Lim SC. A Clinical case study about the patient of Essential Tremor Treated by Taegeuk Acupuncture. The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the Spine and Joint Korean Medicine. 2015;12(1):77-81. (Korean)
  47. Kim HB, Lee MH, Lee SY, Nam DW, Yang DH, Choi YS et al.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 of Constitution-dependent Acupuncture Treatment for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on Heart Rate Variability.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007;24(3):163-174. (Korean)
  48. Jeung YJ, Park SS. A Study on How th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s in 『Donguisusebowon』 Influenced the Formation of the Theory of Eight Constitution. J or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11;23(4):445-457. (Korean)